

‘대한민국 일자리 으뜸’...도내 2개 기업 선정돼



◇이호성 대표 ◇최기영 대표

홍천의 산돌식품(대표:이호성)과 강릉의 화신엔지니어링(대표:최기영)이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. 26일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일자리 양과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최종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.

면류와 떡을 주로 생산하는 산돌식품은 취약계층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 전체 근로자 74명 가운데 41명(55.4%)이 여성으로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35%에 달한다. 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화도 이루고 있다.

설계, 건설사업 전문기업인 화신엔지니어링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‘워라밸(일과 삶의 균형)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. 전 직원 정시 퇴근, 엄마·아빠의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집중근무제(9~18시)를 도입해 야근을 지양하고 있다.

고용노동부는 100개 으뜸기업에 대해 신용평가·금리 우대, 세무조사 유예,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1~3년간 제공한다.

신하림기자 peace@kwnews.co.kr